

“ 인간의 패역과 하나님의 자비 ”

■ 이종윤 원로목사

인간의 극에 달한 악인의 패역상을 보고 한 시인이 탄식을 금치 못한다. 저들의 안중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오히려 자기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벌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거기에 자기 마음에 아첨하는 ‘자궁’ 까지 했다.

창조주께서는 지혜와 선을 말하는 도구로 사람에게 입을 지어 주셨건만, 저들 악인은 그 입을 악과 거짓을 토하는 분화구로 악용하고 있었고, 낮에 악을 행한 사람도 밤에 침상에 들게 되면 자신을 반성하고 과오를 뉘우치는 수가 있는 법이거늘, 저들 악인은 참회는 커녕 저들의 침상을 더 큰 악을 계획하는 온상으로 삼고 있었다. 저들은 외부로부터의 유혹에 의해 피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좋아하여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다. 더구나 방관할 수 없는 일은 저들은 이러한 패역한 생각과 행동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삭이며 충동하여 저들의 동조자를 점차 확산시켜 간다는 사실이다. 안하무인격인 악인의 배신과 패역상을 보고 개탄함을 금치 못했던 시인은 주님의 존귀한 품성을 상기하며 찬양을 마지않는다. 악이 극에 달한 세상에서도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신망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복이다. 시인은 여호와와 인자와 성실에 감탄한다.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악인의 패역을 초월하여 주의 인자가 존대하다는 뜻이고,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는 말은 인간의 불성실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와는 그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주신다는 뜻이다.

시인은 계속하여 여호와와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찬송한다. “공의가 산과 같다”는 말은 여호와와 공의의 견고성과 엄위성, 불변성과 부동성을 나타내고, “판단이 바다와 같다”는 말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여호와와의 심판의 깊이와 신비함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여호와와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짐승도 보호하시고, 짐승도 필요한 것만 아니라 불필요해 보이는 것까지도 보호하신다. 하물며 인간이라!

여호와와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균등하게 분배하시고, 공기를 고루 할당하시며, 우로를 차별 없이 내리신다. 배불리 먹고 충분히 마시며, 벌써 멸절되었어야 할 인간들이 오늘날까지 생존함도 바로 이 까닭이다.

악을 선으로 착각하는 자들의 세계관과 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세계관을 말한 시인은 결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의인의 필연적인 기원을 들을 수 있고 시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기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과 의인이 의인으로 대접받는 사회라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오만한 악인들의 불손과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다. 악인의 재기가 허용되지 않는 시대라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생각을 꺼리는 이유가 그 심판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심판날에 구원 받는 이나 형벌 받는 이의 정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각각 다를 것이다.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받을 심판보다 견디기 쉬운 것이라 하셨다. 소돔의 형벌이 가버나움의 받을 벌보다 가벼울 것이라 하셨다. 두로 시돈 소돔의 백성들은 악한 자로 형벌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을 듣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형벌보다는 쉬울 것이다. 심판날에 형벌에 차등이 있다. 가장 악한 죄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행한 것을 기록한 책들에 따라 공평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구원도 간신히 볼 가운데서 구출 받은 룻과 같은 이의 구원도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그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게 전가되어 정죄하는 심판 없이 자비의 구원을 얻는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돌리자!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권사회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된 교회일꾼, 천국일꾼으로 세워지는 권사회 되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순절공동기도문 : <http://www.seoulchurch.or.kr/upload/Lent.jpg>
 예배당에서는 꼭 스티커가 있는 자리를 확인한 후 앉으시고, 대화 시에는 상호 간에 거리를 유지하며,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 연습이나 각 부서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327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

■ 히 12:1-3
 사도 바울은 신앙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으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 3:12) 신앙은 평생 주님을 따르는 삶,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삶의 끝에 설 때 비로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며 경주를 마치게 됩니다. 사순절은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자세를 가다듬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져야할 신앙의 자세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1. 무거운 짐을 벗고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 중 지치고 힘들 때마다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내려놓았고, 속죄제를 드리며 사죄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본문은 모든 짐을 벗어버린 더 완벽한 표본으로 예수님을 제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에 붙잡혀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으셨고, 죄를 지어 발걸음이 주춤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1)전반적인 욕망 상승, 2)사회적 갈등의 폭증, 3)정신력의 빈곤과 같은 현실들은 우리를 끝없이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어려운 고민 가운데 살게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주님께 맡겨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홀가분하게 걸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 낙심하지 말아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지만 이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중의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로마, 헬라 등 이교세력들로부터 박해의 어려움을 당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적이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어떤 수치를 당해도 견디고 참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주님도 먼저 수치를 당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라는 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먼저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갈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3. 낙심하지 말아야
 시련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어려움에 직면하면 누구나 심한 피로감과 탈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왕상19장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지치고 쓰러진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는 아합 왕 부부의 공격에 마침내 탈진했습니다. ‘이제 죽고 싶습니다.’라며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쉬게 하시고 먹이시면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 신자들은 지치고 힘겨웠습니다. 더러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더러는 은둔하고, 더러는 타협책을 모색했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임이요...’(사 40:31)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잡시다. 십자가의 고난도 개의치 말고 주님을 따릅시다. 끝까지 경주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본받읍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이관규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히 4:15-1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7(사순절4)...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536(326)...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히 12: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92(544)...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권사회 헌신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박미혜 권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롬 12:1 인 도 자
 찬 송 38 다 합 께
 기 도 장호립 권사
 특별찬양 권 사 회
 성 경 요 20:11-18 최중희 권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복음을 전하는 여인들” ... 설 교 자
 * 찬 송 501(255)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유외숙 권사 II부: 정금희1 권사
 성 경 행 19: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성령을 받았느냐?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동수 목사

새벽기도회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회 헌신예배 준비 모임 / 27일(주일) 오전 11시 502호
2. 권사회 월례회 / 27일(주일) 3부 예배 후 801호
3. 디자인팀 월례회 / 27일(주일) 오후 1시 802호
4. 한나 전도회 월례회 / 20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알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세례식 신청 마감 - 금년도 첫번째 세례식인 4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4월 10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 3월 27일(주일)
- 세례 교육 : 4월 3일(주일) 오후 1시 609호
- 세례 문답 : 4월 3일(주일) 오후 2시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13. 이번주 심방 일정
1-6, 2-1, 3-3다락방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고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12명	379명	1,991명	417명	1,765명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복잡하고 불결한 마음이 아닌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불신과 불의와 불충으로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생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기도와 생활이 깨끗하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케도 된다.

깜깜한 밤중이라도 영롱한 별빛을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이 부정되고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축복이요, 은총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다.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히 12:3)		
수요일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수요일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